

확장된 실재-가상세계의 철학적 과제:

서평, Chalmers, Reality+

정 대 현(이화여대)

【주제분류】 형이상학, 인식론, 언어철학

【주요어】 가상세계, 모의, 회의주의, 실재, 양자역학, 확장세계

【요약문】 양자역학(개체의 비실체성, 비인과성, 중첩, 파동함수)이 멀티버스를 이야기하고 양자공학(반도체, 레이저, GPS)이 메타버스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시대에 소위 “가상현실”은 이미 확장된 실재가 되고 있다. 차머스는 그의 저서에서 <실재가 아니면 환상이나 망상>이라 여겨 왔던 실재와 비실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범주를 삽입한 삼분법에 기대어 <가상세계가 확장된 실재의 부분>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자역학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달라진 것은 가상세계가 점점 더 현실에 개입하면서 확장된 세계는 전에 없었던 철학적 문제들의 제기로 분명해진다. 로봇 도우미에 의식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모의세계에서 인간의 정체성이나 동일성의 주체는 깊이 살펴야 하는 것처럼 일상 사회에서의 로봇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철학 주제들, 존재와 인식과 가치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해야하는 것이다. 차머스의 책은 여러 가지 아쉬움과 남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세계의 시대에 철학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자역학(개체의 비실체성, 비인과성, 중첩, 얽힘, 파동함수)이 멀티버스를 이야기하고¹⁾ 양자공학(반도체, 레이저, GPS)이 메타버스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위 “가상현실”이 이미 확장된 실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차머스(D. J. Chalmers)는 최근 저서(*Reality+: Virtual Worlds and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에서 <실재가 아니면 환상이나 망상>이라 여겨 왔던 실재와 비실체의 이분법

1) 정대현(2022), 333-343.

을 벗어나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범주를 삽입한 삼분법에 기대어 <가상세계가 확장된 실제의 부분>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뉴턴 역학이 칸트철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선형성으로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여 실제의 고전적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양자역학은 비실체성, 비인과성 등으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차머스의 이 책은 그런 시도 중의 하나로, 구조적 정보론으로써 가상세계의 형이상학적 문법을 구성하면서 당면하는 철학적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서평의 전반부(1~3절)는 책의 핵심적 내용의 요약이고 후반부(4~6절)는 차머스의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성찰이다.

1. 가상현실-확장된 실제

차머스는 21세기가 만나는 가상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장자(莊子)는 그가 나비인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그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지를 물었고(4²); 플라톤(Platon)은 삶이 동굴에서의 그림자 움직임일 뿐일 것으로 생각했었다(7). 차머스는 가상세계의 “가상”(virtual)의 의미 요소를 몇 가지로 나열한다(188-192). 가상세계는 먼저 가상-오리처럼 오라-외양(as if)을 보이는 속성을 가졌고, 가상-도서관처럼 컴퓨터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또한 비디오 게임에서처럼 지각적, 심리적, 시청각적으로 몰입적이고, 아바타의 사용에서처럼 상호작용적이다. 가상세계의 여러 요소들은 표면상 통일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차머스는 이를 <모의>(simulation) 개념을 동원하여 통합하고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교육, 운동, 실험 등에서 <모의> 개념들은 이미 구현되어 왔고 바로 그 <모의> 문맥의 모든 요소들은 가상세계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의>에는 국소적/총체적; 불완전/완전; 일시적/영구적; 사전-프로그램적/개방적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의> 가 있지만, 차머스는 <가상세계>와 <모의-세계>를 동치적인 것으로 논의해내고 있다(40).

2) 이 글에서 다른 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숫자는 차머스 책의 쪽수를 나타낸다.

<모의-세계>로서의 가상세계는 진짜 세계인가? 실제 세계인가? 차머스는 이를 위해 먼저 실제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108-114). 즉 ① 존재(토니 블링컨은 실제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실제하지 않는다); ② 인과력(수는 인과력이 없지만 실제적이다); ③ 마음 독립성(인간이 생존하기 전부터 지구는 돈다); ④ 비착각(현상은 착각이 아니다); ⑤ 진짜(이것은 진짜(genuine) 다이아몬드인가?) 이다. 그리고 가상세계가 이 기준을 만족한다(115-116)고 판단하여 <모의-세계> 실재론을 제시한다. 디지털 나무는 컴퓨터 속의 처리 과정으로 존재하고; 디지털 새들이 쉬는 터전으로 인과력을 가지며; 이들에 대한 지각은 마음 독립적이고, 착각이 아니라 현상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모의> 실재론은 하나의 형이상학이지만 또한 정보론적 고찰에 열려 있다. <모의> 가설은 “잇-프롬-빗: 사물은 정보로부터” 가설 (the it-from-bit hypothesis) 의 변종이다. 차머스는 <모든 물리적 대상들은 그 구조적 정보들에 기반해 있다>라는 휠러(John Wheeler)의 정보 물리학 명제를 수용(160)하고, 물리학 자체가 구조적 정보들에 관한 것이라는 논변을 제시한다(161-164). 물리학은 물리적 처리과정을 탐구한다. 분자는 원자에 기반하고 그리고 원자는 입자에, 쿼크에 기반하고 그 기저 차원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상징한다. <잇-프롬-빗> 가설이다. 우리는 그 정보의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공간과 시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질량과 전하로써 입자와 파동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디지털 물리학에 도달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정보 알고리즘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론에서는 기초적인 것으로 상징하지 않아도 된다.

차머스는 구조적 정보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보 <빗>(bit) 으로부터 어떻게 사물 <잇>(it)을 얻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173-179). <모의> 가설이 원자나 분자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능하지만, <잇-프롬-빗> 가설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다. <모의> 가설이 참이라면 그 <모의>는 정보 <빗>들의 체계를 수반하고 우리의 경험들은 입자와 전자 등의 표준적 물리학을 모의하여 특정한 알고리즘을 따른 <빗>들의 패턴으로 산출된다. 이 패턴이 바로 디지털 법

칙에 순응하는 <빛>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물리학>이다. 그리고 디지털 물리학으로부터 표준적 물리학의 수학적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면 디지털 물리학은 표준 물리학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입자나 전자의 관찰은 <빛>들의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고, 광자의 관찰도 특정 정보들의 패턴이 된다. 그러한 패턴 속에서 광자는 수학적 역할을 갖는 구조를 갖게 되고 특정한 디지털 단위가 된다. 이것이 <잇-프롬-빛> 가설의 대략적 그림이다.

디지털 물리학을 통하여 <잇-프롬-빛> 가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디지털 물리학은 표준 물리학을 실현한 것이 되고 가상세계와 <모의>세계는 동치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므로 우리의 실재는 그만큼 확장된다. 차머스는 이렇게 확장된 실재에 대해 실질적 기기 사용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의문의 회의주의를 자세하게 논의한다(10장~13장). 즉 가상세계를 위한 헤드셋 같은 장치들은 착각이나 환각 기계가 아닌가? 증강(augmented) 실재는 상대주의, 가짜뉴스,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상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아닌가? 와 같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차머스는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무해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는 전통적 실재 세계에서든 존재해왔고 <신뢰할만한 인증화(authentication)에 의존하여,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68). 결국 가상세계와 물리세계는 지속적이고 두 세계의 요소들은 상호작용하여 혼합된 실재, 확장된 실재를 이룰 것이라고 제안한다.

2. 확장된 실재의 철학적 과제

차머스는 가상세계와 물리세계가 혼합된 실재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확장된 실재의 철학적 과제를 인식, 마음, 가치의 주제에서 새롭게 제시한다. 먼저 인식의 주제에서 확장된 실재에 대한 회의주의는 구체적으로 가상세계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주의의 한 경우는 언어에 기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의식은 뇌의 특정한 한 과정일 뿐이다>라

는 물리주의적 관점에 대해 ‘통 속의 뇌(brain in a vat)’라는 사유실험이 제안되었었다. “나는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가상세계 가설과 동치로 설정된 <모의> 가설에 대해 이러한 회의주의를 적용한다. “나는 <모의>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56). 그러나 퍼트남은 <언어 의미는 외부 세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가설로 ‘통 속의 뇌’ 논변은 모순이라고 보며 이를 <모의> 가설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반면 차머스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며(370-384), “퍼트남은 통 속의 <모의> 뇌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언어 외부주의는 ‘뉴욕’, ‘물’ 같은 어휘에 잘 적용되지만 ‘사람’, ‘제로’, ‘컴퓨터’, ‘모의’ 같은 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머스는 “나는 통 속의 뇌다”는 “나는 컴퓨터의 <모의>이다”와는 다르다고 한다. <모의>-퍼트남은 <모의> 속에 실재한다는 것이다(76).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확장된 실재에서 마음의 철학적 성격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인가? 혹자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모의>될 수 있지만 인간의 뇌만큼은 <모의>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머스는 뇌-모의는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체계로 본다(287). 뇌도 하나의 물리적 체계의 부분이고 컴퓨터로 모의할 수 있는 법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뇌-<모의>는 우리 인간이 기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리 자신이 기계 의식에 대한 일인칭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288). 그렇다면 뇌-<모의>론은 일원론적인가? <모의> 실재론은 <모의>의 내부 관점을 요구하지만 <모의>를 구성하는 <모의자>가 먼저 존재할 것이 상정된다면 외부 관점이 강제되어 <모의자>의 마음과 <모의> 실재의 이원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차머스는 이러한 상황은 비순수 <모의>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 <모의>에서는 아닐 것이라 상정한다. 순수 <모의>에서는 <모의자>의 마음과 <모의> 실재의 이원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순수 <모의>는 추상적일 뿐 비순수 <모의>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그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원론이 세계에 대한 현대과학의 지식론과 일관된다고 생각한다(273).

차머스의 확장된 실재는 가치의 요소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 가 모든 가치를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까닭은 행복이나 기쁨이 의식 상태 자체이고 소통, 우정, 사랑이 의식적 존재들 간의 관계이며 의식적 존재가 지식이나 자유를 소중하게 간주하기 때문이다(329-30). 이러한 가치들은 가상세계나 비-가상세계가 모두 같이 공유한다. 가상세계가 일상 세계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세계, 확장된 실재의 삶을 더 선택하게 되겠지만 가상세계에서도 아쉬운 점들은 있을 것이다. 자유의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회의에 대해 차머스는 “일상에서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가상세계에서도 가질 것이다”(320)라고 말한다. 신체성이 아쉽겠지만 가상세계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가상성과 신체성은 선호의 문제”(322)가 될 것이고 일상에서의 외국 이민 같은 것으로 이해될 것이라 한다. 또한 가상세계에서는 무제한 태양에너지, 인공지능 등의 활용으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표면상 결핍부재의 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부(富)는 기업체에 편중되고 지위적 자산(명예, 명성, 존경, 여러 종류의 영향력)은 소수에 한정되고 관계적(인종, 성, 계급, 지역, 민족) 불평등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가상세계의 창조적 자원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362-364).

3. 가상세계 실제론과 회의주의

가상세계에 대한 회의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언어에 기반한 것 이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가능하다. 그중의 한 경우는 <우주 자체가 비조직화된 먼지 조각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과학소설(Gregg Egan: *Permutation City*)의 한 명제에 기반한 것이다(385-398). 그 핵심 아이디어는 구름 먼지가 어떤 가능한 알고리즘도 집행할 수 있고, 모든 가능세계를 <모의> 할 수 있으며, 수 많은 의식 주체자들을 존재하게 하여 실재의 기반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주의에 대한 차머스의 대응은 <먼지 가설이 전체하는 매핑(mapping)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먼지 가설은 나의 폰의

내적 상태와 외부 상태 간의 매핑으로 폰이 작동하는 것처럼 충분한 먼지들의 일부와 특정 외부상태 간의 매핑으로 우주가 실제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머스는 먼지 가설의 매핑론은 인과 질서가 들어올 자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실재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내적 상태와 외부 상태 간에 매핑이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기초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리체계의 인과 구조가 계산의 형식적 구조를 반영할 때 물리적 체계는 수학적 계산성을 수행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컴퓨터는 인과 기계이고 <모의>체계인 것이다.

가상세계에 대한 회의주의의 또 다른 한 경우는 ‘볼츠만 뇌’ 가설이다(440-441). <물질이 한 순간 무작위적으로 인간 뇌의 정확한 배열>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가설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물음은 “내가 볼츠만 뇌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가 된다. 이에 대한 차머스의 대처는 볼츠만 뇌 가설은 가상세계 또는 <모의>세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모의>세계는 외부세계에 대한 상세한 <모의>의 환경 속에 있지만 볼츠만 뇌가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자는 컴퓨터에 기반한 인과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갖지만 후자는 회의주의적 도전만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경험 속의 규칙성이 설명되지만 후자는 그 규칙성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고 인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모의>세계에서는 “ $2+3=5$ ”와 같은 수학적 명제나 화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일된 이성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볼츠만 뇌 가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차머스는 언어, 먼지 가설, 볼츠만 뇌 등의 주제로 회의주의를 논의하면서도, 또한 가상세계라는 확장된 실재에 대한 실재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412-422). ① 인과와 관찰에 올바른 구조를 유지하는 물리이론들은 거의 참이라 할 수 있다; ② 그러한 물리이론의 구조에 따라 <모의>-우주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의>-우주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물리이론들은 참일 것이지만, 우리의 물리학은 기본 수준이 아닐 것이다; ④ 우리 물리학의 기반은 상위 우주(메타유니버스)에 있는 컴퓨터이다; ⑤ 우리는 메타유니버스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다; F. Jackson의 <매리> 사유실험이 보이는 대로 의식은 구조로 환원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의>-우주는 <잇-프롬-구조-프롬-X>의 형식을 갖는 것이다. 차머스는 가상세계의 실재론을 펴면서도 그 실재의 메타적 차원에 대해서는 “물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칸트적 겸손을 유지한다.

4. 가상세계 & 모의세계

앞의 세 절에서 차머스의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이 책은 칸트가 뉴턴 역학시대의 철학을 구성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시대의 철학 체계를 구성하는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가상세계와 모의세계를 동치화하여 확장된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의 설득력에 관한 것이다. 가상세계와 모의세계를 동치화하기 위해 차머스는 4차원적 공간과 시간의 <유니버스>와 실제의 온 영역인 <코스모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가 필요했다(22, 127-128). 그리고 <유니버스>를 <모의>의 대상으로 취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모의 세계>라야 <유니버스>를 반영한 표준적 물리학의 수학적 구조를 모의하는 디지털 물리학에 도달할 수 있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상세계>와 동치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니버스>와 <코스모스>의 구분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분리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같은 불가능성이 아닐까? 거시세계가 입자, 전자, 광자 같은 미시적 단위들이 상정하는 구조적 정보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미시세계와 독립된 거시세계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니버스>는 시간, 공간, 인과를 기초적 속성으로 요구하지만 <코스모스>는 이들을 기초적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정보론으로부터 추리해 낼 뿐이다. 그러나 <모의세계>가 유니버스의 기초론을 수용하면 코스모스의 기초론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모의할 수 없게 된다.

가상세계와 모의세계를 동치화하여 확장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차머스는 두 세계의 동치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의세계라는 개념에 일

종의 비일관성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일상적 모의(simulation) 개념은 모의자(simulator)와 피모의자(simulatee)의 구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모의자 또는 차머스가 “심”(sim)이라 호칭하는 자는 모의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① 모의 밖에 있지만 모의와 연결된 생물적 심이거나 ② 온전히 모의 속에서만 존재하는 순수 심일 수 있다. 즉 비순수 심이거나 순수 심이다. 그러나 두 세계의 동치화는 <유니버스>를 반영한 표준적 물리학의 수학적 구조를 모의하는 디지털 물리학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물리학은 비순수 모의가 아니라 순수 모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의에 비순수 심으로서의 생물적 심이 존재할 여백이 없다면 모의자의 자리도 없는 것이 아닐까?

5. 메타버스에서의 의식

차머스 확장세계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확장세계, 구체적으로 모의세계에서의 의식의 철학적 지위의 성격이다. 차머스는 1990년대에 이미 의식을 유물론이나 이원론보다는 물성과 심성의 간격의 인과적 연결이 난망하여 비-이원론으로 기울고 있었다고 생각한다.³⁾ 그러나 2020년대의 차머스는 모의세계에서의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우미 로봇들은 정보탐색, 심부름, 행동대행 등의 기능적,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로봇에게서 의식이 가상화(virtualization)될 것인가? 차머스는 가상세계에서의 모의인간 <심>은 의식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는 것 같지 않다. 펜로즈는 양자중력론이 인간 행위에 결정적인 비-알고리즘적 요소를 갖는 과정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지능적 모의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차머스는 의식은 뇌에 기반하고 생물적인 뇌는 크지만 유한하여 강력한 양자중력 컴퓨터를 통해 모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인다(18-23).

3) Chalmers(1996); 정대현(1998), 297-304.

그렇다면 가상세계에서의 차머스의 의식론은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칸트적 겸손으로 만족해야할 처지에 있다(163-165, 417-422). 모의론은 모의자와 피모의자 즉 심(sim)을 구분한다. 심은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행위를 모의하지만 의식은 없을 수 있고 단지 프로그램을 만든 모의자의 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 모의론은 내부관점과 외부관점을 구분하고 수용하여 이원론으로 향하게 된다. 완전 모의론은 그러한 구분을 허용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개연성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머스는 의식이 알고리즘적이 아니라면, 의식과 물리세계의 관계를 <잇-프롬-빛>의 정보론적 구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잇-프롬-빛-프롬-구조>가 되고, 정보론적 구조를 의식과 관련시켜 <잇-프롬-빛-프롬-구조-프롬-의식>의 도식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알 수 없다고 하여, <잇-프롬-빛-프롬-구조-프롬-의식-프롬-X>라는 물자체적 칸트적 도식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림은 현실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6. 양자역학 시대의 철학적 지평

차머스 확장세계론이 철학적 과제들을 논의할 때 그 중의 한 주제는 양자역학시대의 철학적 소임이다. 그는 많은 문맥에서 양자역학적 민감성을 발휘하면서도 또 다른 중요한 문맥에서는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 중의 하나는 실재의 다섯 기준이다. 존재, 인과력, 마음 독립성, 비착각, 진짜의 기준은 일관성 있게 양자역학적이기 어려운 것이다. 차머스는 실재+를 양자역학 시대와 일치시키고자 하면서도 심각하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과력은 정보의 알고리즘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표출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전제하지만 기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재 기준의 한 필요 요소로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양자역학 시대의 실재의 기준은 구조적 정보와 관측을 연계하는 특정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양자역학에서의 실재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한 질문은 미세현상의 실재와 거시현상의 실재를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거시현상에서는 개별자, 인과관계, 열역학, 엔트로피, 시간 공간 등의 사안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미세현상에서는 그러한 사안들을 기초적으로 요청하지 않아야 하는 데서, 두 현상의 연결고리의 과제는 중요해진다. 이 연결고리가 명료해질 때 <모의> 실재론과 <가상> 실재론의 관계도 선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는 명료해질 수 있는 과제일 것인가? 이 과제도 <잇-프롬-빋-프롬-구조-프롬-의식-프롬-X>라는 한계적 도식에 의존할 것인가?

차머스는 가상세계에서의 언어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차머스의 퍼트남 언어외부주의에 대한 비판은 모의 회의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머스의 의미론이 아직 지칭론의 구조 내에 있다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사용론의 구조로 옮겨 와야 하지 않을까? 인간 일상언어의 성공은 언어를 지칭론적으로가 아니라 사용론적으로 구사해서가 아닐까? 사용론은 일상언어를 지칭적으로가 아니라 색인사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관점이나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에서도 같은 것을 나타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방식은 양자역학이 함축하는 관찰과 구조적 정보의 관계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차머스의 이 책은 양자역학의 물리학과 공학이 펼치고 있는 시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양자역학에 기반한 가상화, 모의화로 실재계는 확장되어 현대인은 전통적인 세계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통적인 기준이나 고정관념은 혼란스럽고 그 복잡성은 현실을 쉽게 왜곡하기 마련이다. 21세기에 보이는 신규(新舊) 세대의 차이는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것이고 이 차이는 확장된 세계의 근본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철학의 과제, 인문학의 필요가 그만큼 절실해진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이나 동일성의 주제를 다시 살펴야 하고 일상 사회에서의 로봇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철학 주제들, 존재와 인식과 가치의 성격을 새롭게

4) 정대현(2020), 5-34.

조명 해야하는 것이다. 차머스⁵⁾는 앞의 토의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남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뉴턴 시대에 철학적 지평을 제시한 것과 같은, 양자역학 시대에 화이트헤드 철학⁵⁾에 못지않은 철학적 지평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5) Whitehead, A. N., (1929)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on line,
<<https://antilogicalism.com/wp-content/uploads/2018/04/process-and-reality.pdf>>

참고문헌

- 정대현(1998), 「유물론과 데카르트의 동시 극복: Chalmers, The Conscious Mind」, 『철학과 현실』, 제39호 (1998 겨울): 297-304.
- _____ (2020),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위한 이것 실재론」, 단국대학교 『철학논고』, 제2집 (2020.12): 5-34.
- _____ (2022), 「양자역학 철학과 심학십도-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한국철학회 『철학』 150(2022.02): pp. 333-343.
- Chalmers, D. J.(1996), *The Conscious Mind: In Search of a Fundament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Whitehead, A. N., (1929)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on line, <<https://antilogicalism.com/wp-content/uploads/2018/04/process-and-reality.pdf>>

<Abstract>

Book review:

**D. J. Chalmers, *Reality+: Virtual Worlds and
the Problems of Philosophy***

Daihyun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At the time in which quantum mechanics (lack of individual substance, non-causality, superposition, wave function) engages in talks of multiverses and quantum technologies (semiconductor, laser, GPS) helps to realize a concept of metaverse, the so-called ‘virtual life’ has become the extend reality. Chalmers in his book rejects a dichotomy of reality and illusion and consctructs a trichotomy by adding virtuality in order to offer a proposition that a virtual world is a part of the extended reality. The author sees new philosophical challenges in this new reality. For an example, as we are bound to allow some form of consciousness to a robot in a context of simulation there are questions of status of personal agency or personal identity. Traditional subjects of ontology, knowledge, and value come to us as new challenges. Despite difficulties in discussions of some topics, the author leads us to see a new horizon of possible philosophical debates for a new reality.

Main Scope: Metaphysics, Knowledge, Language

Keyword: Virtuality, Simulation, Scepticism, Reality, Quantum mechanics

접수일: 2022년 09월 12일/ 심사일: 2022년 09월 13일~09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년 21일